

“배달앱서 1만원짜리 음식 팔아 1000원 벌어요”

#일주_이슈

‘배민’ 중개수수료 6.8→9.8% 인상
市 점유율 50% 차지...의존 심화
음식값 인상·외식물가 상승 ‘우려’
탈퇴 선언... 공공 배달앱 이용 당부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전정부지로 오르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점유율 1위 배달중개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6.8% (부가세 별도)에서 9.8%로 3%p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오는 8월 9일부터 적용되며 이용료율이 인상되면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9.8%)와 동일해진다.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민은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배달비를 건당 100~900원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달비보다 수수료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가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업주는 980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배달비, 결제 정산 이용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4598원(서울지역 기준)가량의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 주문 금액이 증가할수록 개편 전과 비교해 총액이 늘어나므로 ‘배달앱’에 지불하는 금액만 음식값의 20~40%에 달하게 된다. 재료비·공공요금·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이윤은 더욱 줄어든다.

자영업자들은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1000원도 남지 않을 때도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배민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생각하면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내면서도 대형배달플랫폼을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입점 식당이

많고 무료 배달·할인 쿠폰 등 혜택이 다양하며 사용이 편리한 대형배달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배민 2213만명, 쿠팡이츠 733만명, 요기요 555만명으로, 배민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지역 배달앱 점유율도 지난달 기준 배민이 50.54%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이츠 16.70%, 요기요 15.42%, 공공배달어플인 위메프 12.41%, 땡겨요 5% 등 순이었다.

이처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식값을 올리거나 배달 주문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음식값이 줄인상 되면 외식 물가가 오르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떠날까 봐 함부로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다는 영세 상인들은 경기침체, 고물가에 따른 제반 비용 상승, 인건비 부담, 배달중개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영업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제청 국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수치이자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이에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의식업중앙회 및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19일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며 ‘배민 독립(탈퇴)’을 선언했다.

이기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앱이 3대 배달앱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민들의 이용률이 올라가도록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예산을 확대 편성해 홍보를 확실히 해 줘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정남진 장흥물축제 전남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주말인 지난 27일 장흥 탐진강 일대에서 열린 ‘정남진 장흥물축제’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올림픽 개막 실수·사과... 한국체육 위상 실감”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경기장이 아닌 야외 수장에서 개최된 제33회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30만명이 센강변에서 참가하여 전세계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개막식을 함께했다.

206개국의 선수단은 85척의 배를 나눠 타고 센강을 가로지르며 입장했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48번째로 입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으로 잘못 소개하는 역대급 오점을 남겼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할 순번이 되자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데모크라틱(Democratic)’이라는 단어에 의아했고 한국 아닌 북한이라는 걸 직감한 후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개막식 직후 문제부의 장미란 차관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적극적인 대처로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전화를 한것은 물론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 서한을 발송한다는 것은 한국체육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다음날 유도경기장인

아레나 상드마르스를 찾았다.

우리나라 유도대표팀은 전남도 출신인 황희태 감독이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경기장 앞에서 황희태감독과 함께한 강진군체육회 이병돈 회장, 보성군체육회 이광수 회장과 함께 유도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올림픽은 한국 체육 역사상 가장 어려운 대회로 생각된다.

올림픽을 앞두고 문제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 역대 최소규모의 선수단과 최저 메달 획득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제 개막식이 막 끝나고 대회가 시작한 만큼 예상을 뒤집고 우리 선수단이 선전하여 한국체육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본다.

OASIS HACKATHON 2024

제5회 오아시스 해커톤
- 호남지역 대학생 네트워크

주관 gico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 해커톤 대학생 연합

+ 모집기간
2024. 7. 17.(수) ~ 8. 9.(금)

+ 주제
호남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AI·ICT 서비스 개발
(교육/안전/사회/환경/관광/창업 등)

+ 참가대상
해커톤에 관심이 있는 호남권 대학 재학 및 휴학생 약 100여명

+ 시상규모
7개팀 총 850만원(대상1, 최우수1, 우수2, 오아시스 특별상3)

시상항목	시상팀	상금
대상	1	300만원
최우수상	1	200만원
우수상	2	각 100만원 총 200만원
오아시스 특별상	3	각 50만원 총 150만원
합계	7	총 850만원

* 타 공모전 입상여력이 있는 산출물, 해당 산출물을 표절·도용·모방한 산출물로 확인되는 경우 시상금이 안료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시상금 환수

+ 참가방법

참가대상

· 호남 권역 내 모든 대학 재학생 혹은 휴학생

참가신청

· 구글폼을 통한 참가신청

기재사항

· 인적사항(이름, 소속,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팀원별(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중 택 1) 자기소개, 참가 동기, 소통과 협업 경험, 분야별 질문, 각 분야의 경험 포트폴리오 유무

(기획 1명, 개발 2명, 디자인 1~2명)

· 희망하는 멘토링 내용

+ 문의처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

오아시스 해커톤

@oasis_hackathon

+ 일정

홍보 및 접수

24. 7. 17.(수)
~ 8. 9.(금)

참가자 확정

24. 8. 12.(월)

추가인원

(지원미달 시)

24. 8. 13.(화)
~ 8. 14.(수)

팀 미팅 및

개별 멘토링

24. 8. 16.(금)
~ 8. 22.(목)

오아시스 해커톤

24. 8. 26.(월)
~ 8. 27.(화)



참가신청서